

# 2004년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 BSI지수 79의 낮은 수치로 향후 경기전망 어렵게 예측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천485개 제조업체(회수 1천31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0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4/4분기의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지수는 79의 낮은 수치로 나타나 기업들이 향후 경기 전망을 어렵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재경쟁력을 수치화 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전체 응답업체 분포를 보면, 경기가 3/4분기에 비해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가 20.9%(275개사)로 전분기(22.6%)에 비해 줄어든 반면, 악화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42.2%(556개사)로 전분기

(33.5%)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와 같은 결과가 국제 유가의 상승세 지속과 중국의 건축기조,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며, 여기에 소비 회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등의 문제가 단기내 해소되기 어려

운데다 사상 최저 수준인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은 4분기에 예상되는 경영 애로요인으로 전체의 42.6%가 '원자재'를 들어 고유가의 지속과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했고, 자금(24.3%), 환율변동(7.5%), 인력(7.4%), 임금(6.0%)의 순이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농약 과다 사용 농산물 시장 출몰 막아

### 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출장소 적극 지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출장소(소장 김성균)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서 부적합농산물로 통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농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등 생산과 출하관리로 나섰다.

이같은 원인은 일부 농가에서 수도작이나 과실류에 사용하는 농약의 시금치,부추,속갓 등 액체류에 부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출장소는 올해 곡류,채소,과일류를 비롯한 25개품목 428건을 대상으로 생산·유통과정에서 안전성분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농산물 출하일을 기준으로 약7~15일 전에 재배포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출하연기,유통제한,폐기)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 불이행시는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농약병(포장)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해당 작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인지를 확인후 희석비율과 사용시기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상품화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영중농협, 상계백병원과 자매결연



영중농협회관에서는 7일 농도상생을 위해 인적 물적교류를 약속하는 농촌사랑 자매결연식이 열렸다.

영중농협(조합장 안남근)은 7일 영중농협 회관에서 서울 상계백병원(원장 박상근)과 농촌사랑 자매결연식을 마쳤다.

안남근 조합장은 "이 행사는 도시소비자, 기업체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사랑 나눔 실천운동이다"며 "농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도상생(農都相生) 운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농촌은 도시로부터 일방

적인 도움을 받는 개념에서 탈피해 농·도간의 이해와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사랑 협력조인식에서 영중농협과 상계 백병원 측은 자매결연협정을 조인하고 자매결연과 독려 ▶주말농장 등 농촌지역에 서 여가 보내기로 농촌환류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가 자칫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지원 및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 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 '꿈이 있는 농촌·농업을 우리 손으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한 연찬교육.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소재 낙산비치호텔에서 농촌지도자와 4-H연맹 및 생활개선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농업의 핵심주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들의 지도력 배양과 조직 운영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첫날 동해대학교 간호학과 최정숙 교수가 "농업인의 건강관리요령"이란 주제로 강의에 참석자들이

의 호응을 받았으며, 저녁시간에는 농업인 협동 한마당행사를 통해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포천시 농촌지도자와 4-H연맹 및 생활개선회는 새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연찬 교육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그리고 세계화·국제화에 대응하는 수출농업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해 포천농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포천시 농촌지도자연합회는 "포천 농특산물 알리기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9월 9일 "도시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각 농어민 단체들이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자생식물원 견학을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교육에 대해 참석 농업인들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21세기 이전에 찬 포천 농업"을 확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우리 지역의 사업소 (주)팜코리아

# 100% 천연섬유로 만든 웰빙 팜트리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신생활 공간을 앞장서 창조해 나가겠다는 기업이념 아래 충실하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즐길 줄 아는 자연과 고객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호석

(주)팜코리아(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426-1 대표이사 이호석)는 "ENJOY NATURE" 라는 슬로건 하에 고객들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자연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생활 문화기업으로 천연 소재를 활용한 팜트리스(Palm tress, 팜트리스는 야자나무를 뜻하는 Palm 과 매트리스(Mattress)를 합성한 단어로 팜으로 만든 매트리스를 의미함)를 선보이고 있다.

(주)팜코리아는 1977년 9월에 설립되어 27년 동안 국내 유명 침대업체에 매트리스

##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친환경 매트리스

### 팜섬유로 만든 다양한 제품 생산으로 업계 최고

내장재인 코코넛팜을 납품하며 업계 발전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위 소재지에 2000평 규모의 최첨단 생산시스템을 보유하고 100% 천연 매트리스인 팜트리스를 비롯하여 웰빙매트, 필로우(베개), 쿠션(방석) 등 팜섬유로 만든 다양한 생활용품 생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친환경 산업용 소재를 개발 공급하면서 자연환경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최신식 독일 슈트머신을 도입하여 기존에 수입에만 의존해 왔던 제품을 최초로 생산하고 있으며 원료 주산자인 태국에 지사를 두어 양질의 원자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주)팜코리아의 야심찬 계획아래 선보이고 있는 팜트리스는 천연 매트리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양질의 야자섬유를 엄선하여 수입, 생산되며 고무 역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100% 천연고무만을 고집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품질과 기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팜트리스는 99.9% 자체 항균성을 보유한 소재로서 처음은 물론 시간이 지나도 박테리아, 진드기 등이 서식하지 못해 매우 위생적이다. 또한 습도 및 온도를

조절 해 주는 보온보습 효과와 원적외선이 강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평이 나왔다.

이 대표이사는 "팜섬유로 만든 매트리스 제조방식"에 대한 특허청 실용신안등록 등을 위시한 27년간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면서 "100% 천연섬유로 만든 팜트리스야말로 다른 수식어가 필요없는 100% 웰빙 제품이며 완벽한 제품생산에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자연을 지향하는 (주)팜코리아는 지난 8월 중순 팜코리아 분당점을 개점하면서 전문브랜드로 인지를 굳혀가고 있으며 팜트리스 전문메이커로 이탈리아 유명침대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매트리스시대를 열어나가는 팜트리스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친환경 매트리스로서 인체에 무해하며 고객에게 쾌적한 수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 상담실: 080-317-9999

정병기 기자 jpk61@hanmir.com



(주)팜코리아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친환경 매트리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산업안전사고 예방

### 선반과 공작물사이에 협착



재해발생 공작기계

적외선으로 선반을 제조 당시의 목적인 절삭 및 절단 등의 작업이 아닌 연마작업에 사용함으로써 제조 당시의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선반 작업시 면장갑 착용으로 선반 등의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면장갑을 착용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반 등 작업 도구의 목적 외 사용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공물의 조도(調度) 개선을 위한 사포 연마작업시에는 전용의 연마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선반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마 작업용 지그 또는 수공구 설치 사용한다. 둘째, 장갑을 사용금지한다. 선반 등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제 장갑 등외에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 등 착용 금지해야 하는 것이다.

2004년 0월 00일(0요일) 00시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000 선반작업장에서 피재자 000이 선반에서 스크류 로울러 사포 작업 중 오른손 면장갑이 말려들면서 스크류 로울러와 선반의 베드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의 원인으로는 먼저 선반의 목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되었을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 비과세 요건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04.1.1이전에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

-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되었을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 비과세 요건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04.1.1 이전에 부모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 봉양하는 노부모의 나이가 남자는 만60세, 여자가 만55세(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료제공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